



제50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 참가자와 페이스 메이커(왼쪽에서 두 번째)가 영산강 승촌보 주변을 달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코스 곳곳 “힘내라”... 밀고 끌며 함께 완주

42.195km 동행 취재기

광주 도심에서 펼쳐진 3·1절 마라톤대회는 치열한 경쟁 속에 만들어진 한편의 드라마였다. 정현경(여·27)씨에게 광주시청으로 출퇴근하던 길은 다르게 다가왔다. 교통체증을 겪던 차도 한가운데를 달리자 무심코 지나쳤던 가로수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정씨는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3·1절 마라톤의 매력에 푹 빠졌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월드컵경기장 등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장소에 내 발자국을 남길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창교 인근 하프 반환점에는 문창열(42·영광)씨의 자녀 성주(13)군과 가희(8)양이 아버지에게 건넨 물과 초코파이를 안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 유운정(38)씨가 “아빠다”라고 소리치자 아이들의 눈망울이 빛났다. 빗물과 땀이 섞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가희양은 곧 울듯한 얼굴이었지만 “힘든 택배일을 하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힘찬 응원의 소리를 냈다. 레이스 패트롤(Race patrol)로 나선

‘노란자전거’ 회원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문기영(26·전기공학과 4년)씨 등 전남대 자전거 동아리 회원 16명은 이날 일일 안전요원인 레이스 패트롤이 됐다. 대회에 처음 참가한 김도민(대동고 1년)군과 홍예준(윤리중 2년)양에게는 무예학원 관장 송종범(37)씨가 있어서 든든했던 길이었다. 극락교를 지나 코스가 굽어지자 지점에서 제자들이 힘에 부쳐 휘청거려야 송씨는 “고지가 머지 않았다. 힘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두 제자는 나란히 결승선에 들어설 수 있었다. 제자가 스승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

다. 영어학원 강사 박계형(여·37)씨의 ‘버킷리스트’를 위해 제자 6명이 뭉쳤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 중에 하나였던 마라톤 완주, 영주체육관 앞 가파른 도로에서 박씨는 등을 밀어주는 제자들이 있어 힘을 낼 수 있었다. 오다유(경신여고 1년)양은 “선생님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7명 모두 완주할 수 있었다. ‘골드미스’ 선생님의 소원을 이룬 추억을 영원히 간직할 것이다”고 함박 웃음을 지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세월호를 잊지 말아주세요”

지사모 회원들 추모차 참여

수많은 인파가 모인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현장에 노란 조끼를 행거입은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조끼에는 ‘함께 가요. 빛고를 1000일 순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 지난 2010년 결성된 친목모임 지사모(지속히 사랑하는 모임) 회원 10명이 그 주인공이었다. 회원들 중엔 마라톤 동호회 소속도 있었고 아버지가 참가하는 모임에 함께 나온 중학생도 있었다. 숨이 차올라 잠시 쉬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완주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달렸

다. 류석용(진흥중 3년)군도 쉬었다가 달렸다가를 반복했지만 비장한 모습이었다. 아버지가 소속된 지사모 회원들이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도록 행사를 해보자’고 할 때부터 류군은 동참하기로 마음 먹었다. 류군은 “은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점점 잊혀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찬 바닷속에서 허무하게 사망한 형, 누나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꼭 잡고 달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천 명의 마라톤러 사이를 누비며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는데 앞장섰다. 정남관(47) 지사모 회장은 “취미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지만 잊혀져 가는 세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국민에게서 잊혀지지 않길, 그리고 생명중시 안전사회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질주를 끝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부문별 우승자 인터뷰

“바뀐 코스 덕에 최고기록 2분 단축”

풀코스 남자 김수용씨

“최고기록을 2분가량 앞당기며 다시 우승컵을 안게 돼 기쁩니다.” 대전에서 달려온 마라톤러 김수용(39·대전한마음마라톤)씨가 2시간32분31초에 결승 테이프를 끊으면서 50번째 3·1 마라톤의 주인공이 됐다. 2013년 세운 자신의 최고기록(2시간34분28초)을 2분가량 앞당기며, 세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김씨는 “광주일보 3·1마라톤 50년을 축하한다”며 “날씨가 덥지 않아 뛰기엔 최적의 조건이었다.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질주하는 ‘도심 코스’가 3·1마라톤의 매력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0번째 생일날 5번째 우승 기쁨”

풀코스 여자 이정숙씨

“50번째 생일을 맞은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하게 돼서 겹경사를 맞은 기분입니다.” 여자 풀코스 5연패를 달성한 이정숙(50·천안)씨는 이번 대회에서 풀코스를 3시간 안에 완주하는 ‘서브쓰리(Sub three)’ 목표까지 이뤄냈다. 지난 2008년 하프 우승으로 3·1절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이씨는 2년 뒤 풀코



스로 전환했다.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인 이씨는 천안의 한 마라톤 동호회에서 뛰며 꾸준한 단련해왔다. 이씨는 “함께 온 회원 4명 가운데 여자 하프코스에서도 우승자가 나와 크게 한탄 내야겠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철저한 자기 관리가 비결이죠”

하프코스 남자 김보건씨

“3·1 마라톤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브자리’ 회장님 기억해주세요.” 제50회 3·1마라톤 하프에서 우승한 김보건(27·정석근마라톤사관학교)씨는 취입준비생이다. 김씨의 목표는 마라톤 열풍이 강한 친구회사 ‘이브자리’다. 김씨는 “마라톤은 자기관리가 철저해야만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배운다”며 자신을



알렸다. 48회 대회 10km에서 우승했던 김씨는 이번 대회 하프코스에도 도전, 1시간12분28초의 기록으로 우승컵을 들

“3·1마라톤 코스 좋아 기본 좋은 레이스”

하프코스 여자 류승화씨

“살얼한 날씨에도 좋은 기록으로 2연패를 이뤘습니다.” 천안에서 먼길을 온 류승화(37)씨가 가장 먼저 하프 코스 결승선을 끊으며 대회 2연패를 이뤘다. 지난해 3·1 마라톤 참가를 위해 처음 광주를 찾았던 그녀는 올해도 기분 좋은 질주를 펼쳤다. 류씨는 “지난해 처음 참가했는데 우승도 하고 매끄러운 대회 진행에 기분



좋게 광주를 다녀왔다. 많은 대회에 참가하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코스나 교통 통제 등이 훌륭하다. 올해도 참가 접수를 한

광주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3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내부 깨끗
- 방 3, 화장실 2, 거실 1
- 신우APT 105동 옆
- 매매 - 1억 6400만원 (대출 1억 가능)

광전파크 “빌라”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광전파크 빌라 5층중 4층 20평
- 동남향, 2013년 신축
- 방 2, 화 1, 거실
- 신우APT 근처, 즉시 입주
- 매매 - 9900만원 (대출 4900만원 포함)

근린상가 “지하”

- 광주 동구 산수동 21-5 남양빌라
- 분양평수 150평(실97평)
- 감정가/시세 - 1억5천만원정도
- 노래방, 탁구장, 골프연습장, 호프, 독서실 등 적합
- 매매가 - 6200만원

현재 경매 진행중!

1/3 가격으로 매매합니다.

문의.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임장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 ▶ 2200만원
- ▶ 1대1 실전 사례 교육
- ▶ 배우면서 투자 가능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